



3면

"용담댐 방류 수해 피해 보상·제도적 장치 마련을"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음 8월 5일) 제2624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 27일 24시까지 1주일간 전북 101번발 10명 확진 방문판매업체 점검강화 미등록 업체 엄정 대응

전북도는 지난 18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7~20일) 연장 방침에 따라 21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달 20일로 종료되나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9%로 치솟아 2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1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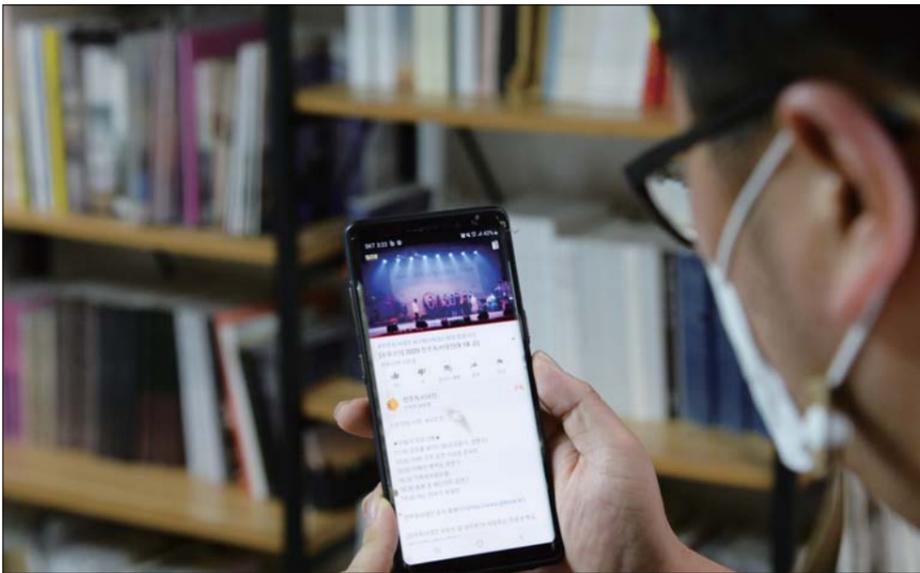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명절기간 방역을 위해 추석 특별 방역기간(28일~10월 11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역조치는 다음 주 관계부처와 시도 회의를 통해 결정·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방문판매와 관련 코로나19 도내 101번발 환자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10일간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 4차 감염까지 발생해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01번 환자와 관련된 방문판매업체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체로 불법 미등록업체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점검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본사 및 지점, 센터 등 소재지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방향을 정하고 목록을 정리해왔으나 서울시의 관리 목록에 해당 업체가 누락됨에 따라 전북도 방문판매업 점검대상에 미 포함된 사각지대 업체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시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 코로나19 여파에 책방에서 바라보는 '2020 전주 독서대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0 전주 독서대전이 온라인 개막식을 연 지난 18일 완산구에 위치한 에이커 북스토어에서 책방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서대전을 바라보고 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다독 다독, 당신을 들었습니다'를 주제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20일까지 열렸다.

이러 등 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등록 방문업체 관리를 위해 방문판매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노년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 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등록 업체는 음·면·동사무소와 이·통장이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불법영업 신고센터인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소비자상담센터 280-3255~6)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했으며 지난 18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적으로 점검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방문판매업 사업장 목록 현행화 촉구를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간 연장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

은 발열, 인후통 등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 '별거 아니다'며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시군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전북 유치

#### 50개국 5000여명 참가 지역경제 효과 74억원

2023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전북에서 펼쳐진다. 지난 18일 전북배드민턴협회(회장 김영제)에 따르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주최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BKA)가 주관하는 '2023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전북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유치로 전북은 2022 아테미스터스대회에 이어 2년 연속 국제규모의 체육 행사를 치르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회 유치를 희망한 전북(전주)과 인천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전북을 최종 선택했다. 전북은 ▲개최지역 적합성 ▲경기장 적정성 ▲관중 유치 효율성 ▲숙박·관광 시설 적합성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유치 조건으로 요청한 즐기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이벤트 프로그램은 전북이 잘 소화할 것이라는 평이다. 실제 전북은 전주 한옥마을과 새만금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이번 대회는 성취 중심의 엘리트 선수 대회가 아닌 세계 50개국 배드민턴 은퇴 선수 및 동호인 등 약 5,000여명 참가하는 국제

대회다. 이 대회는 8일 간연량별(9개 부문)로 치러지며 남자단식과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등 총 5개 종목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참가 선수를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이 전북을 찾으면서 약 74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국제방송매급사에서 세계 50개국으로 대회의 모든 일정을 배급하는 만큼 전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에 따라 전북체육회와 전북배드민턴협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대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갖추게 계획이다.

김영 회장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매머드급 동호인 국제대회"며 "전북 체육 위상을 높이고 전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 주기는 2년이며, 지난해에는 폴란드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스페인에서 개최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 한옥마을 주변 도시재생으로 '생기'

### 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등 국비 67억4000만원 확보

전주 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과 증례동 서노송예술촌 등 한옥마을 주변이 도시재생으로 생기가 활기쳤다. 전주시는 동서학동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과 증례동 '서노송예술촌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 국비 6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조감도. 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동서학동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50억 원 등 총 382억원을 투입해 국립무형유산원 서편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교육체험·전시실, 다목적실, 주민편의시설과 같은 생활SOC(국토교통부) ▲예술인 행복주택(LH)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전시·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SOC와 함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예술인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면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서화예술마을이 연계되는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증례동 내 공기를 활용한 '서로돌봄플랫폼'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7억4,000만원 등 총 29억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연면적 720㎡ 규모로 조성된다. 서노송예술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서로돌봄플랫폼'은 작은도서관, 노인교실, 어린이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점단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신속하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전주한옥마을 인근의 동서학동과 서노송예술촌이 위치한 증례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맘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7 홈페이지 www.imsil.kr